

투데이 칼럼

새학년 새학기 공부설계

새 학년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3월은 학생들에게 가장 소중한 달이다. 매년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학교환경이 바뀌면 마음은 긴장된다. 새담당선생님, 새친구, 새교실이 모두 눈에 설다. 지금쯤은 어느 정도 적응되고 있을 때다. 학습에도 한학년씩 올라가니 단계가 높아져 적잖게 심리적 부담을 안게 된다. 배울 교과도 많고 학습수준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명심보감 입교편에 공자삼계도(孔子三計圖)가 있다. '일생계획은 어려서 세워야 하고, 한해계획은 봄에 세워야 하며, 하루계획은 새벽에 세워야 한다'고 했다. 학교에서 3월은 일년을 계획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다. 새학년 새학기를 맞이하여 '공부설계'를 하는데 참고할 사항 몇가지를 안내한다.

첫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라. 자신감을 갖으려면 우선 걱정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걱정은 긴장을 불러일으켜 좋은 친구들, 좋은 선생님을 만나다 해도 계획이 뜻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둘째,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워라. 욕심이 앞선 나머지 실천하지 못할 무모한 계획은 실행만 안겨준다. 성공하는 사람은 우선 작은 일부터 실천해가는 사람이다. 실패하는 사



김재춘 전 원주동양초등학교장

람은 작심 3일을 반복한다. 자신의 능력에 맞게 차근차근 이뤄나가야 성공한다.

셋째, 나만의 공부법과 시간을 가져라. 공부법은 개인에 따라 모두가 다르다. 자신에 맞는 공부법을 터득해나가야 한다. 공부시간 역시 하루중에서 가장 능률이 오르는 시간대를 확보해야 한다.

넷째, 집중력을 높여라. 집중력은 공부 성취율을 배가시킨다. 책상 앞에 앉으면 공부에 몰두할 수 있도록 습관화하라. 정해진 시간에 계획한 공부에 몰입할 때 집중력은 점차 높아지게 된다.

다섯째, 복습을 철저히 하라. 공부에는 복습만큼 좋은 것이 없다. 독일 심리학자 에빙하우스는 학습 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이 망각되니 반복학습이 필요하다고 증명했다. 꾸준히 복습하는 것만이

우등생 비결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수업에 충실히 임하라. 우등생 비결의 으뜸은 수업충실이다. 수업충실은 특별한 실력의 바탕이 된다. 이를 위해서는 꾸준한 연습하고,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일곱째, 중도에 포기하지 마라. 무슨 일이든 꾸준히 공을 들이지 않고서 되는 일이 없다. 처음엔 잘 버티다가 두세 달이 지나면 중도에 안된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라.

여덟째, 틈틈이 독서하라. 교과공부에 얽매어 독서를 소홀히 하면 기본적인 인문학적 소양이 밑받침이 되지 않아 창의성 개발이 안된다. 독서야말로 풍부한 사고력을 길러준다.

아홉째, 오늘 할 일은 오늘 해치

위라. 많은 학생들은 밤에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할 일을 미룬다. 낮에 1시간 공부하는 것은 밤에 1시간 30분 공부하는 것과 같다. 나중에 하려는 안이한 생각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

열째,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을 다져라. 공부는 지구력이 있어야 버틸 수 있다. 자신의 신체리듬에 맞춰, 쉬 때는 적절한 운동과 휴식으로 건강을 다져야 한다.

?새 학년이 되면 부모의 가장 큰 소망은 아이가 공부 잘하는 것이다.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중요한 요인은 실력이 아니라 대부분 인간관계에 있다고 입을 모은다. 아이가 어떤 친구들을 사귀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하고, 교우관계에서 어떤 점이 부족하거나 고쳐할 점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도 부모의 준비 사항임을 잊지 말아야겠다. 아이 스스로 공부계획을 세워 성실히 실천할 때, 칭찬과 격려로 의욕을 북돋워줘야 한다. 비록 목표에 미흡할지라도 멀리보고 참고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

모든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된다. 가정의 따뜻한 울타리 안에서 아이의 몸과 정신이 건강하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사설

노후 수도권 교체 서둘러야 한다

노후 수도권과 관련하여 할 말이 있다. 총선의 계절이라서 그런지 모든 관심사가 정치 쪽에 쏠려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다른 중요한 관심사가 있으면 그 쪽에도 눈길을 주어야 한다. 물론 눈길을 주어야 한다는 말의 의도는 분명하다. 시정할 것이 있으면 노후 수도권에 대해 말을 아졌는데 또 다시 언론에 보도됐으니 답답하다.

수자원공사 측이든 많은물사업소 측이든 노후 수도권 문제를 속히 시정해야 한다. 사실이지 노후수도관 문제가 언론에 보도될 때마다 도민의 눈총을 받고 있으니 어지간하다. 당국은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따르겠다는 마음을 다져야 한다. 노후 수도권 교체에 대해 이에 신경을 쓰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래서는 안 된다. 도내 언론사들이 노후 수도권 교체를 거듭 촉구했던만큼 듣는 척도 안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다. 교체 실적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지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말이다.

노후 수도권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 도내에 10년내지 20년이면 노후관이 전체의 절반에 달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누수되는 물이 아깝기도 하거나와도 민물이 깨끗하지 못한 물을 마시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당국이 노후 수도권 교체와 관련해 매년 인색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그래서는 곤란하다. 도민들에게 녹물을 공급하겠다는 심사라면 물라도 그렇지 않다면 노후 수도권 교체를 서둘러야 한다.

지금은 보리 산업에 주목할 때

국제 보리 산업의 활성화 방안이 절실하다. 보리 산업의 활성화 방안이 절실한 것은 전통적인 농도인 전북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불철의 들린을 보면 유류 농지가 많은데 아깝다. 농지를 불린 채로 내버려 두면 손해해달라는데 안타까운 현상이다. 농촌 인구의 대다수가 노인들이다. 노동력도 감소도 떨어져서 그러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리 산업의 활성화가 절실한 것이다.

보리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 보리 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보리에 대한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서 연구하고 뛰어난 보리 산업 활성화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전북도의 농정 당국은 농부들로 보리농사를 더 짓게 해야 한다. 그런 적극성이 지금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로 가고 있다. 보리농사를 가꾸거나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매년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래서는 안 된다.

보리 산업에 주목하자고 말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보리농사를 영

지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FTA 협상에 따른 수입 개방 물결이 도도한데다 2012년부터 정부가 보리 수매를 안 해주고 있는 게 보리농사를 짓지 않게 된 근본 이유이지만 보리 산업을 일으켜보려는 의지가 없었던 것도 원인이라면 원인이자. 그리고 보리가 웰빙 식품이라고 말만 했지 소비 운동을 벌이지 않고 있는 것도 문제이다. 가난했던 지난 1980년대만 해도 인당 보리 소비가 한 해 40kg에 달했는데 현재는 13kg에 그쳐버렸다. 다시 보리 산업에 주목해야 한다. 보리농사를 지어서 옛날처럼 보리밥을 먹자는 이야기이다. 보리를 식재료로 다양한 식품을 개발하는 것이다. 그런 젊은이들의 기호에 도맞아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보리 산업의 활성화가 절실한 지금이다. 정부가 나서서 보리 생산을 독려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전북도는 농가들과 연계해서 새로운 소득 창출을 도모할 수 있을 터이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독자제언

무단횡단 교통 안전 불감증 심각

최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겨울철 날씨가 추워 나들이를 하지 않던 노인들이 날씨가 풀리면서 나들이를 하는 노인들이 급증 하여 교통사고 역시 급증하고 있다.

특히 과속 차량이 많은 새벽 시간대에는 고졸수거등 폐지를 모아 생계를 유지 하는 노인도 많아 항상 위험한 상황이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무단횡단에 의한 교통사고는 최근 3년동안 15만2천여건이 발생해 6천200여명이 사망했고 15만3천여명이 부상당했다고 한다. 이처럼 무단횡단은 교통사고 사망자의 43% 전체 교통사고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반면, 무단횡단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은 심각한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당 보행중 교통사고 사상자수는 4.1명으로 OECD

국가 평균 1.4명에 비해 3배나 높아 후진국형 무질서 행위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 할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경찰은 노인정,경로당 등을 찾아 최근 교통사고 사례 등을 설명하고, 더불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여 의식의 변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은 무단횡단 등 범규위반자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 등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법규 위반자는 좀처럼 줄어 들지 않고 있다.

무단횡단은 지름길이다. 조금 불편해더라도 정해진 횡단보도나 육교를 이용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이며, 나아가 이러한 의식전환과 실천은 선진교통문화가 정착되는 지름길일 것이다.

배봉규원산서서학파출소팀장

사위고기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독자제언

다른 피해주는 112 허위신고 제발 말길

위급한 범죄나 사고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112는 긴급전화인 것을 모두 알고 있다. 우리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범죄 하면 생각나는 번호인데 찾은 허위, 장난, 시비성 욕설 신고 전화로 인해 경찰력낭비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신속히 출동하지 못하고 또 다른 피해를 낳게 하는 요인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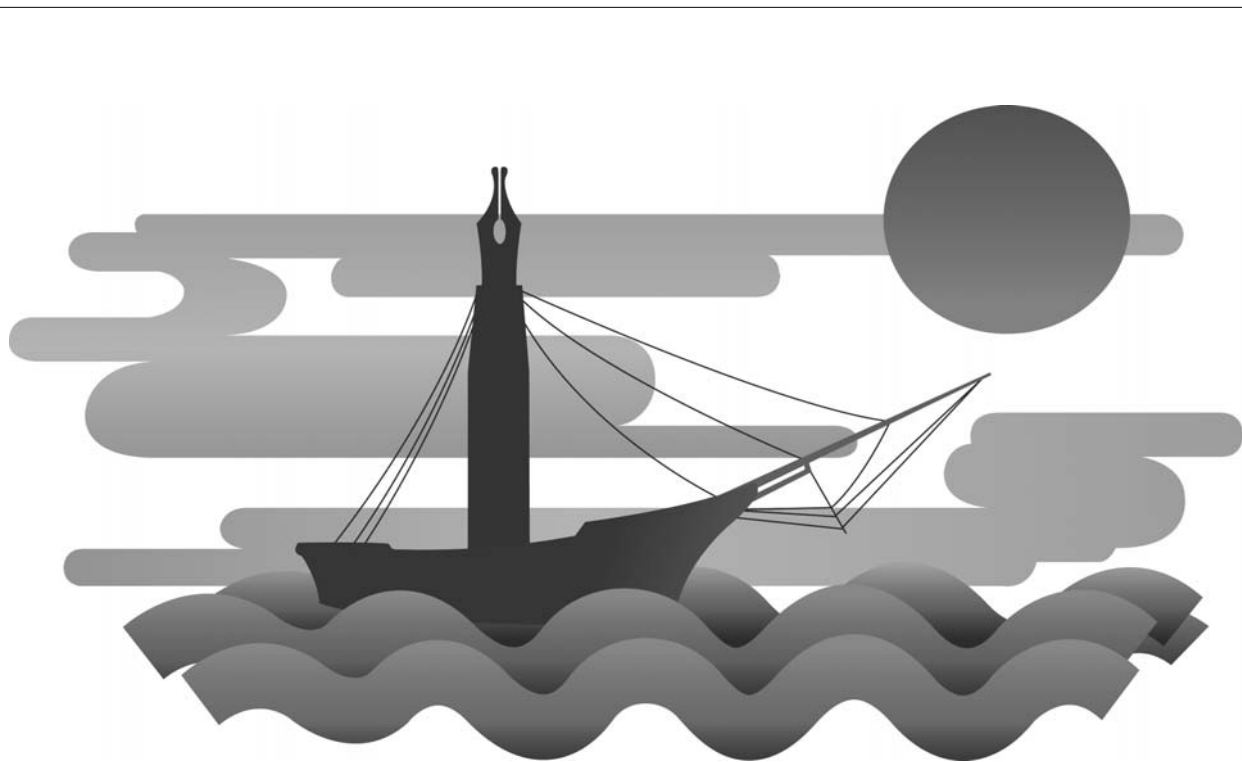
이로 인해 매년 1만여 건 이상이 112 허위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고 각종 범죄 발생시 경찰이 빠르게 현장에 출동하여 범죄를 제지하여야 하는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의 구조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찰은 112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범죄 상황으로 보고 동원 가능한 경찰력을 모두 투입하여 대응하기 때문에 허위신고는 심각한 경찰력 낭비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 경우

허위신고자는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에 처할 수 있고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신고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따라서 범죄 신고와 관련이 없는 경찰 업무 민원전화는 182번, 공공행정에 관한 포괄적 민원안내에 대해서는 110번, 불법주차·소음 등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에 대한 민원은 시청이나 군청 민원센터 120번으로 구분되어 운영하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도록 하고 112신고전화는 경찰의 도움이 필요로 하는 시민에게 생명과 같은 전화 이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이므로 나와 내 가족이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하고 허위 장난신고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박지환 전주원산경찰서평화파출소순경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러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립니다.